

2020년 상반기 직책자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직책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지해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관리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리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설문에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책자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설문을 포함한 설문결과는 경영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법을 일삼고 그것이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관리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보고서 분석 자료]

■ 그룹별 평균 점수 비교

그룹명	2019년 상반기 평균점수	2019년 하반기 평균점수	2020년 상반기 평균점수
본사 본부장	68.9	71	53.6
본사 팀장	69	71.5	55.7
WM 본부장	58.1	60.4	52.9
WM 지점장	66.6	69.8	53.4

(그룹별 평균점수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하락)

■ 주요 문제점

- 시간외 수당 청구 거부 및 신청 못하도록 회유 및 협박, 조기출근 강요
- 휴가를 포상의 개념으로 인지 및 자율적 사용 제한
- 욕설, 폭언, 고성 및 모욕 주기, 인간적인 무시 및 자괴감 유발, 매일매일 공포감 조성
-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주기, 발령 협박을 통한 충성심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및 중간 관리자를 통해 괴롭힘을 사주하거나 방조
- 실시간 실적 강요 및 연대책임 추궁
- 보복성의 괴롭힘
- 메시지를 통한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 직원 평가르기 및 줄서기 문화 만들기
- 규정에 벗어난 업무 강요
- WM직원 계좌 뺏기
- 불필요한 회의 및 회식 참석 강요
- 직원 전화 감청
- 인력 충원 요청 거부 및 무시

저녁 뉴스에 나올법한 얘기지만 매일매일 미래에셋대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누군가의 아들, 딸은 매일매일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회사의 현실적인 정책과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평균 점수가 작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2020년 상반기 직책자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회사는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것처럼 근로문화 역시 급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과거 '라떼'에 사로잡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도태될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일부 넓은 관습에 얽매어 있는 관리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노동조합 소통보고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